

『유리동물원』에 나타난 도피자

이 해 민

(계명대학교 / 교수)

Lee, Haimin. Fugitive Kind in *The Glass Menagerie*.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121-139. This paper examines 'fugitive kind' as a central theme in Tennessee Williams' *The Glass Menagerie*. As suggested in most of his works by T. Williams, the two extreme worlds revealed in *The Glass Menagerie* are that of reality, in which people should strive hard to live through frustration and despair, and that of illusion in which people are making up imaginary worlds to try to escape from the harsh reality of life. The Wingfields, unable to face the reality, are all forced to hide themselves in their own world of illusion, where they find a shelter as fugitive kind: Tom's retreat into the world of adventure, Laura's retreat into the fantasy of the glass menagerie, and Amanda's retreat into the fantasy of her Southern belle days. The characters are inevitably confronted with pain and desperation, whereupon they are frustrated. The most obvious thematic message of this play is that each of the Wingfields is fugitive kind.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dentifies fugitive kind as a pivotal leitmotif in *The Glass Menagerie*. (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fugitive kind, despair, illusion, harsh reality, glass menagerie

I

테너시 윌리엄즈(Tennessee Williams)의 최대 관심사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부적응으로 인해 현실을 도피하여 가공된 환상 속에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윌리엄즈는 '도피자'(fugitive kind)라는 자신의 핵심 주제를 일관성 있게 작품들을 통해 표출시켰으며, 밝고 희망적인 삶의 면보다 암울한 삶의 탐색에 더 몰두한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불행했던 가족사와 연결된다. 특히 윌리엄즈는 미국 남부라는 배경을 통해 미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성적 방종, 소외, 빈곤, 좌절 등의 사회적 속박에서 기인되는 인간의 왜곡된 심리를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윌리엄즈의 주인공들은 대개 예민한 감성과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강하고 냉정한 자들만이 견뎌낼 수 있는 산업화된 현실 세계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공한 과거의 환상 속으로 빠져드는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된다.

윌리엄즈는 급진적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여 성공한 유형의 인간들보다 이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부적응자들을 자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염세적이고 병적이며 따라서 비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Donahue 209). 윌리엄즈는 “사려가 부족한 세상에 의해 망가진 고독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극작가로 인정받아왔다(손홍일 166-67 재인용). 윌리엄즈의 주인공들은 대개 과거의 남부적 전통과 가치관을 고수하지만, 결국은 현실 사회로부터 몰락해 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급속히 산업화된 물질문명으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상실감 속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유형들이다. 이들은 대개 좌절감, 고독, 성적 파행, 사회의 폭력성 등에 의해 고통받는 절망적 존재들이며, 정상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가다가 제마다의 도피처를 찾는 도피자들이다.

윌리엄즈는 방대한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고정된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법을 혼용하였기에 그를 어떤 특정 문예 사조 작가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작품주제와 복잡미묘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 윌리엄즈는 특히 스트린버그(August Strindberg)의 표현주의적 기법에 의존하였다. 아울러 그의 작품에서는 로렌스(D. H. Lawrence), 체호프(Anton Chekhov), 크레인(Hart Crane) 등이 끼친 사상적 또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시도되어 왔다(Bloom 1-5).

윌리엄즈 작품을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시도되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공황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변혁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 미국 남부라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야기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가치 체계를 인지하는 것이 윌리엄즈 작품의 이해와 주제 분석에 핵심적 요건이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과 관점은 윌리엄즈 작품의 주제와 특징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즈 작품 대부분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중심주제(leitmotif)를 단순히 극단적 상황이 서로 대치하는 대립의 구도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의 작품들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주인공들의 양면성이 작가 자신의 특이한 심리세계의 표출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극단적이며 대립적인 양상들이 어떻게 도피자라는 중심주제와 연결되는지 고찰하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즈의 초기 대표작인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심리세계를 통해 표출된 양 극단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 사이를 오가면서 각자 스스로의 도피처를 찾는 도피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 양 극단의 세계는 주인공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실 세계와 이들이 그렇게도 갈구하는 희망과 이상의 세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리동물원』에서 주인공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세계와 간절한 희망의 이상세계 사이에서 절망하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마다 도피처를 찾아가는 과정과 요인을 윌리엄즈의 중심주제인 도피자의 시각에서 밝히고자한다.

II

윌리엄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주인공들이 각기 자신의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갈등하며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는 인간 내면의 성향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으로 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즈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이 겪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주인공들의 외적인 요인과 내면적 기질 그 어느 한 쪽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쪽 모두에서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야기된다.

작가의 전기적 요소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건이 되지만, 특히 윌리엄즈의 경우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성장과정에서 겪은 실제 경험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 투영되는데, 윌리엄즈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자신의 상황을 늘 일치시킨다. 낸시 티셀러(Nancy Tischler)가 “대부분의 그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겨났다”(15)라고 밝히듯이 어린 시절 작가가 체험했던 경험과 가족사적 요인이 그의 작품의 직접적인 주제가 된다. 윌리엄즈가 창조해낸 왜곡되고 음울한 등장인물들의 묘사는 바로 작가 자신의 기질과 경험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윌리엄즈는 불화가 잦았던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식을 이어받고 있다. 그의 부모는 성향과 기질이 서로 너무나 달라 자식에 대한 태도가 대치되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대립적인 갈등이 윌리엄즈의 주요 극에서 발전되어가면서 표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자신의 가족사 속에서 윌리엄즈의 가장 강력한 작품들에 나타나는 갈등이 발전되었다(Hirsch 7).

윌리엄즈는 『유리동물원』에서 등장인물들이 암울한 현실로부터 도저히 탈출구를 찾아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남부의 가치와 현대 산업문명의 가치 사이에서 당혹해하며, 가혹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창조한 환상의 세계 속으로 도피하는 도피자의 화신들이다. 이 작품의 세 주인공 어맨다(Amanda), 로라(Laura), 톰(Tom)은 위협적이며 파국적인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도피처로 환상을 찾는다. 도널드 코스텔로우(Donald P. Costello)는 이 세 주인공에 대해 그들이 하나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살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유리동물원』의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어맨다는 과거 속에 살고 있으며, 로라는

자신이 만들어 낸 작은 장식품들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톰은 늘 너
무나 불안하며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자신을 “해적기를 단 범선”이란
표식과 동일시 여긴다. (110-11)

루비 콘(Ruby Cohn)도 등장인물들은 가혹한 현실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자들로서, 어맨다는 처녀시
절 남부의 추억 속으로, 로라는 유리동물원으로, 톰은 영화관, 시 창작 등
으로 환상의 꿈에 몰입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Dialogue 101).

19세기 말 체호프에 의해 문학적인 주제로 대두되었던 환상과 현실의
갈등은 20세기 중반 윌리엄즈에 의해 절정에 이르며, 이 후 윌리엄 인취
(William Inge), 카아슨 맥컬러즈(Carson McCullers) 등에 의해 계승되었
다(Boxill 5). 윌리엄즈의 등장인물들이 환상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 그들
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이다. 윌리엄즈도 “14
세 때 자신은 글쓰기가 자신이 몹시 불편하게 느끼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도피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글을 쓴다”(Sweet 9)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도피자를 일관성 있게
자신의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자서전적 요소를 작품 속에 강렬하게 투영시킨 작가가 그려내는 대부분
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도피자들이다. 어맨다는 윌
리엄즈가 “망상에 사로잡혀 약간 맛이 간 남부미인”(Falk 157)이라 말한
어머니 에드위나(Edwina)의 변형이고, 로라는 정신질환자인 누이 로우즈
(Rose)의 변형이며, 톰은 청교도 전통과 세속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로라는 실제의 현실 세계보다도 그녀에게 더욱 현실적인 유리로 된 세
계를 창조하여 그것을 가장 명확한 환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라는 신사
방문객인 짐(Jim)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을 갖지만,
그가 약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이 유리 세계로 돌아온다. 그녀

는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세계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만의 도피처를 찾게 되며, 스스로 만든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도피자가 된다.

어맨다는 로라와는 달리 환상의 세계에만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다. 빈곤한 살림살이, 아이들 장래 문제 등과 같은 당면한 현실과 부닥치고 또 이를 극복해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도 되돌아보는 남부 처녀시절은 충분한 환상을 제공해 준다.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시절 만났던 17명의 신사방문객, 무도회 등이 바로 그녀의 화려했던 추억의 세계로 자신을 고달픈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게 한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때, 어맨다도 블루 마운틴 시절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도피자가 된다.

로라와 어맨다가 각자 환상을 통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에 엄청난 반감을 가졌던 톰 역시 자신이 만들어 낸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 한다. 단조로운 공장 생활, 가난, 가족 생계 부담 등으로부터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톰 또한 스스로의 환상을 추구한다.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영화와 꿈을 통해 모험적이고 낭만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그가 가족을 버리고 떠날 때, 그의 도피가 처절한 현실에서 자신을 떼어갈 만큼 충분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가 떠난 후 남게 되는 가족의 가련한 현실, 즉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감상적인 어머니와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름발이 누이의 환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로워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톰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향수를 파는 가게의 조명이 환한 진열장을 지납니다. 그 진열장은 산산이 부서진 무지개의 조각들처럼 채색된 유리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내 누이가 나타나 나의 어깨를 만집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오, 로라, 로라, 나는 누이를 버리고 잊으려 했었던데, 내가 이렇게 누이에게 헌신적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I pass the lighted window of a shop where perfume is sold. The window is filled with pieces of coloured glass... like bits of a shattered rainbow. Then all at once my sister touches my shoulder. I turn around and look into her eyes... Oh, Laura, Laura, I tried to leave you behind me, but I am more faithful than I intended to be! (236-37)

윌리엄즈는 이 극을 통해 출구가 없는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봉착한 윈필드(Wingfield) 가족이 현실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한 좌절, 환상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낸 인간관계의 몰락을 표현한 이 극을 윌리엄즈 자신이 “몰이해의 비극”(a tragedy of incomprehension, *Where* 26)이라고 불렀다.

『유리동물원』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적 상징들은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윌리엄즈는 다산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영역은 제한적이며, 그의 중심주제는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대표적인 중심주제인 도피자가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들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윌리엄즈의 이러한 수법에 대해 콘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윌리엄즈는 다산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영역은 제한적이다... 이미지와 리듬 외에도 윌리엄즈는 세트, 음악, 조명을 사용하여 사실적 표면으로부터 상징적 의미를 이끌어낸다; 즉 상징이 더 노골적일수록 극은 더욱 더 망가지기 마련이다... 윌리엄즈의 상징적 비유는 바로 그 비유의 유약함이 드라마라는 구조로 엮어질 때 매우 효과적이다. 『유리동물원』에서 어맨다의 진부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바로 그 예다. (“The Garrulous” 59, 1977)

윙필드네 식구들이 추구하는 환상세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도피자의 세계임이 그 가족 이름의 상징을 통해 잘 나타난다. 윙필드라는 이름은 날개(wing)를 달고 높이 날아가고 싶은 이상과 지상(field)의 현실 사이의 대치되는 조합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즉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혹은 등장인물들이 꿈꾸는 이상과 그들이 그렇게 되어 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상황 사이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암시한다.

이 극은 톰의 회상으로 시작되며, 톰은 회상 속에서 어맨다, 로라와 함께 살며 겪었던 가족사의 일련의 광경들을 제시한다. 유리동물원은 지체장애자이며 감수성이 연약한 로라의 세계로, 희망이 없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인 환상의 세계를 암시한다. 가혹한 현실 세계를 피해 자신이 상상해낸 유리형상의 세계로 침잠하는 로라는 현실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도피처를 찾는다. 매리 코리건(Mary A. Corrigan)은 “현실 세계에선 멸종한 일각수처럼 환상의 세계에만 머물며 비정상적인 것이 수용되길 희망하는 로라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피처를 찾는다”(157)고 주장하고 있다.

로라가 현실을 도피하는 이유는 그녀의 열등의식 때문이다. 그녀의 열등의식은 육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양 쪽 모두에서 기인된다. 육체적 요인은 그녀가 늘 지니고 다녀야 하는 목발이며, 심리적 요인은 어머니와의 비교로 인해 생겨난 열등감이다. 로라가 도피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 데이비드 시이버즈(David Siev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라는 현실세계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기에 ... 그녀는 심지어 타자학교도 견디지 못하고 첫 속도시험에서 구토 히스테리를 경험한다. 더 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신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녀는 꽃밭으로 도피한다. (372)

지체장애라는 열등감에 구속되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로라는

현실 세계에서 소외되는 가련한 존재이며, 산업화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발적 아웃사이더(outsider)를 상징하고 있다. 자신의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집에서는 톰과 어맨다와 마찰이 잦았고, 고등학교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해 졸업 직전에 중퇴하였고, 그 후 전문대학 입학 후 본 타자 시험에도 실패함으로써 로라의 패배의식은 더 심화된다. 그녀는 자신의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물관, 영화관 등을 도피처로 삼아 돌아다니며, 이렇듯 절망적 현실로부터 도피자가 된다.

로라의 도피적 성향은 신사방문객인 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한다. 어맨다에겐 과거의 자존심을 부여하며, 또 로라에겐 새 희망의 대상이 되는 신사방문객 짐은 잠시나마 이 두 모녀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로라에 대해 톰은 “어머니,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인 작은 유리장식품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88)라고 못마땅하게 말한다. 어맨다는 유리동물들이 자신의 전부인 로라의 이러한 내면세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딸의 결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기대하는 신사방문객에만 몰두한다. 어맨다가 짐을 초대하였을 때, 딸을 예쁘게 단장시키려는 맹목적인 어맨다의 노력은 로라를 더욱 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만들어 그녀를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한다(191).

짐이 약혼녀 베티(Betty)와 곧 결혼하리라는 사실을 로라에게 털어놓자, 로라의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며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과거의 환상이 사라지자 그녀는 처참한 현실 속에 홀로 남겨진다. 로라는 또다시 희망의 도피처를 찾아 환상 속으로 몰입한다. 콘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로라에게 일시적이지만 희망이었던 짐은 결국 로라를 파괴시켜 그녀를 다시 유리형상의 세계로 도피시킨다.

짐은 상상 속에 살고 있는 유리형상 속의 소녀인 로라를 사실상 망가뜨린다... 그녀에게 키스한 후 짐은 자신이 베티와 약혼했기 때문

에 다시 로라를 방문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린다. (“The Garrulous” 58, 1987)

어맨다는 과거의 환상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미묘한 심리를 소유한 인물이다. 가족부양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그녀 역시 남부 블루 마운틴에서의 행복했던 처녀시절을 회상하면서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로라의 유리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블루 마운틴은 어맨다가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피처로 사용하는 환상의 세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벤저민 넬슨(Benjamin Nelson)은 “그것은 어맨다가 그녀 주위의 세계로부터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모든 것, 즉 젊음, 아름다움, 고상함, 명예, 전통을 상징한다”(21)라고 밝히고 있다.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도피의 삶을 살아가는 어맨다에 대해 데이비드 매슈(David Matthew)도 “어맨다는 추억에 가장 홀려있는 사람이며, 그녀는 과거로 정의된다”(218)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을 직면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어맨다는 과거 자신의 추억과 연계된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 어맨다의 이러한 도피자 성향은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톱과 로라에게로 이어지면서 탈출구가 없는 삶의 전개를 심화시킨다. 그녀의 이러한 도피자 성향은 자식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자식들의 회피적 삶의 방식을 더 강화시킨다. 결국, 로라는 실재하지 않는 무시간 속으로 도피하고, 톱은 드디어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도피자의 길을 떠난다. 자식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어맨다에 대해 샘 블루파브(Sam Bluefarb)는 “톱과 로라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과거라는 토굴에 자식들을 매장 하길 원했던 이기적인 어머니의 불운한 희생자들이다”(517)라고 주장한다. 존 개스너(John Gassner)도 “어맨다는 현재의 상황을 블루 마운틴에서의 행복했던 과거 시절에 투사시킴으로써 자신의 과거 지향적 삶의 희생물로 만드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307)고 밝히고 있다.

지난날 남부에서의 낭만적이며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행복한 추억의 회상에 젖어있는 어맨다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영광을 헛되이 좇는 신세가 되어 남부 숙녀 시절의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 블루 마운튼과 수선화는 행복했던 과거 남부숙녀 시절의 상징으로서 어맨다에게 젊음, 사랑, 풍요로움 등 모든 이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어맨다가 회상하는 블루 마운튼은 그녀의 왜곡된 환상 속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빈민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목가적인 블루 마운튼의 환상 속에 갇혀있는 그녀 역시 자가당착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블루 마운튼은 로라의 블루 로즈(Blue Rose)처럼 실재하지 않는 허상이며, 어맨다가 환상의 세계에서 희구하는 그녀의 도피처인 셈이다.

블루 마운튼과 더불어 어맨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과거의 환상은 자신이 맞이하던 17명의 신사방문객이다. 비록 많은 수의 구혼자들이 그녀의 과거세계에 화려함과 권위를 부여하지만, 이제 현실은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과거는 다시 되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어맨다의 회상은 그녀가 아직도 가혹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후에 델타 플랜터즈 은행의 부행장이 된 젊은 챔프 래플린이 있었지... 커트리어 형제들과, 웨슬리와 베이츠도 있었지... 베이츠는 그 난폭한 웨인라이트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 둘은 문 레이크 카지노 마루에서 총을 뽑아 결투를 벌였지.

There was young Champ Laughlin who later became vice-president of the Delta Planters Bank... There were the Cutrere brothers, Wesley and Bates... He got in a quarrel with that wild Wainwright boy. They shot it out on the floor of Moon Lake Casino. (149)

넬슨이 “그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늘 희망하고 기다리는 그 어떤 것,

즉 기대의 상징으로 보여 진다”(21)라 지적하듯이, 신사방문객인 짐 역시 윙필드네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도피처로서의 개연성을 갖게 한다. 어맨다는 톰의 친구이자 신사방문객인 짐을 초대하여 로라의 환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시도한다. 그것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고, 특히 짐이 우연히 로라가 가장 사랑하는 일각수의 외뿔을 깨뜨리는 상징적인 실수를 범할 때 로라는 “전혀 비극이 아니에요. 유리란 너무도 쉽게 깨지지요”(226)라고 예전과는 달리 대범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로라가 이전의 열등감으로 가득 찬 현실도피자의 세계로부터 현실의 세계로 이주해왔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암시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짐은 정중하게 이미 자신에게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떠난다. 빅스비(C. W. E. Bigsby)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권위와 그리고 로라의 미래에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 어맨다가 청한 신사방문객은 현실세계의 밀사이다”(48)라고 신사방문객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처하게 된다.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제마다 환상 속의 도피처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두 대립적인 세계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 어맨다도 과거의 환상 세계와 자신이 헤쳐 나가야만 하는 절망적인 현실 세계와의 괴리에서 좌절하며 도피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두 대립적인 세계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남부 명문가의 후손으로 품위 있는 삶을 견지하려는 노력과 어린 자식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지독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어맨다는 위엄과 수다스러움, 우둔과 현명함 등이 공존하는 이중적이지만 등장인물 중 가장 균형적인 성향을 띤 인물이다.

어맨다가 비록 과거의 환상 세계로 빠져드는 도피자의 전형이지만, 현실 세계와 타협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과거와 현실의 세계 모두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며, 상이한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인물이다. 넬슨은 어맨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어맨다는 과거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그녀는 현재에도 그 만큼이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99)라고 말하고 있다.

톰은 윌리엄즈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도피자로서, 내면세계의 충동과 열정에 있어 감성적인 현대인의 전형적 표상이다. 그는 어맨다가 지닌 블루마운틴에서의 과장된 추억들을 거부하고, 오로지 상상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미래 생활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냉혹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그는 마침내 질식할 것만 같은 빈민아파트로부터 벗어나 영화, 무도장, 모험 등과 같은 환상의 세계로 도피한다. 시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꿈으로 그는 현실의 중압감과 불안감을 버려 나가고 있다. 윌리엄즈는 다양한 문학적 비유를 통해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려는 톰의 행각과 심리세계를 발현시키고 있다.

자신을 도피자로 만든 주 동인이 되는 톰의 갈등은 그의 내면적 욕망과 가정환경 그리고 사사건건 자신을 간섭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와의 충돌에 의해 심화된다. 어맨다가 톰이 읽던 로렌스의 책을 외설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도서관에 반납하자, 이에 대해 톰은 사랑을 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면서 어맨다의 청교도주의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어맨다는 본능의 만족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간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은 마음과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반박한다. 가족을 위한 삶의 돌파구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톰의 행동에 대해 어맨다는 늘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두 모자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어맨다의 노골적인 불만표출은 톰의 현실 도피를 심화시켜 그를 도피자로 몰아간다. 시그니 포오크(Signi Falk)는 자신의 단조로운 일상과 가족부양 책임의 속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안달하는 톰을 “떠돌이 몽상가”(itinerant dreamer, 47)라고 말하고 있다.

윌리엄즈는 이 작품에서 냉혹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그의 중심주제를 각자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톰의 가족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게다가 작가는 등장인물인 톰, 어맨다, 로라 외에 화재비상구(fire escape),

파라다이스 무도장(Paradise Dance Hall), 블루 마운틴, 유리동물원 등의 상징적 기법을 통해 인간의 현실 도피 욕망을 표출시키고 있다.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부터 벗어날 기회만 찾고 있던 톰에게 길 건너 파라다이스 무도장은 일시적이거나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해준다. 이름 자체부터 상징적인 이 무도장은 어맨다의 화려했던 과거 남부세계인 블루 마운틴과 로라의 환상 세계인 유리동물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환상의 세계이자 동시에 현실 도피자의 세계이다.

냉혹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환상을 좇지만 톰의 갈등은 끊임없이 충돌하며, 낮에 부딪히는 고통스런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에는 영화를 통해 톰은 모험의 세계로 또한 도피한다. 톰이 매일 밤 영화관에 가는 것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동경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환상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톰은 어맨다에게 자신이 직장에선 거의 누릴 수 없는 모험의 세계를 영화를 통해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173).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톰의 욕구는 점점 더 심화되며,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 윈필드씨의 미소 띤 사진은 현실 도피를 암시하는 상징물로서 톰의 도피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이 작품의 실제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윌리엄즈는 작품 도입부에 최초의 도피자의 전형으로 아버지 윈필드씨를 의도적으로 전개시킨다. 이는 도피자라는 윌리엄즈의 중심주제를 처음부터 강력히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전개라 할 수 있겠다. 그는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좇아 떠나버린 무책임한 가장으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최초의 도피자이다. 어머니와의 논쟁에서 톰은 아버지의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교통수단이 이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고 외친다(163). 남편인 윈필드씨의 사진은 어맨다에겐 행복했던 과거 블루 마운틴의 처녀시절을 회상하게 해주지만, 아들인 톰에게는 환상의 꿈을 찾아 떠나는 도피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툼도 아버지처럼 결국 가족을 버리면서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꿈이 서려있는 자신만의 모험의 세계로 도피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현실, 즉 고달픈 삶에서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와 지체장애인 누이가 끝까지 그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며, 톼의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영상으로 남는다(236-37). 톼은 환상을 좇아 현실에서 도피함으로써 비로소 가족과 현실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게 되며 환상의 허구를 각성하게 된다.

윌리엄즈는 냉혹한 현실과 가공된 환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결국은 좌절하여 가공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본질적인 삶의 진면목을 제시한다. 도피자 이미지는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가장 보편적인 중심주제로 고안되었으며, 자서전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유리동물원』에서 톼, 로라, 어맨다는 하나같이 작가의 이러한 의도를 잘 대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유리동물원』의 각 등장인물이 가혹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방황하다가 결국은 모두 현실로부터의 도피자가 되는 요인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III

테너시 윌리엄즈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이전의 초기작 『도피자』(*Fugitive Kind*)에서 영화 <도피자>(The Fugitive Kind, 1960)의 원작인 후기작 『지옥의 오르페우스』(*Orpheus Descending*)에 이르기까지 도피자는 윌리엄즈의 의식세계를 시종일관 지배하는 대표적인 주제였으며, 작가는 자신의 많은 작품에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도피처를 찾아 나선 도피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자신의 작가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윌리엄즈 작품의 중요한 중심주제가 되어왔으며, 따라서 그가 창조해낸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유형의 도피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작인

『유리동물원』을 윌리엄즈의 중심주제인 도피자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등장인물인 로라, 어맨다, 톰은 모두 가공된 환상을 만들어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처를 찾는 전형적인 윌리엄즈의 도피자들이다. 아울러 도피자라는 주제적 접근이 작품의 등장인물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현실의 대립이라는 작가의 또 다른 주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도피자의 주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도 살펴보았다.

윙필드네 세 가족 톰, 어맨다, 로라는 각기 처한 냉혹한 현실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며, 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의 도피처를 찾는다. 톰은 파라다이스 무도장이 상징하는 꿈과 모험의 세계로 도피하며, 어맨다는 블루 마운틴의 남부숙녀 시절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며, 로라는 일각수로 대표되는 유리동물원의 환상세계로 도피한다. 이들이 가공한 환상의 세계는 결국 희망의 도피처가 되지 못하며,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절망적 현실과 단지 희망일 뿐인 환상 사이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한다. 환상이 일시적인 희망과 도피처를 제공할 순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을 더욱 더 도피자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한다.

윌리엄즈는 『유리동물원』에서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 가공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도피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중심주제를 극화시키고 있다. 특히, 윌리엄즈는 이러한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삶에 투영된 절망과 좌절 그리고 희망을 표현주의 기법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시각에서 표출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윌리엄즈가 그려내고 있는 도피자는 현실 적응을 부단히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여 사회적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도피자는 통념상으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부류의 인간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인간사회의 피해자이기 보다는 가해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윌리엄즈가 이 작품에 등장시킨 도피자는 역설적으로 사회의 피해자에 가깝다. 톰, 로라, 어맨다는 유약하고 감수성이 강한 인

물들로서 이들의 생존방식이 기존 사회의 제도와 인습, 규범 등에 부응하지 못해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만과 망상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절망적 상황에 이르는 피해자로 볼 수 있겠다.

작가의 출세작이며 자전적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유리동물원』에서 윌리엄즈는 경제대공황시기 사회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던 미국사회의 소외계층들의 절망과 희망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표출시켰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한 그의 등장인물들은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되며, 현실과는 너무나 상이한 환상 속으로 희망을 좇는 도피자가 된다. 작가의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특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해아림은 당시 상처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잔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 윌리엄즈가 『유리동물원』에서 도피자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주제적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가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기에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작품을 통해 제시된 이러한 주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 포용적이며, 관용적인 작가의 일관된 입장과 그 맥을 잇고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어느 미국 소외계층을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작가의 메시지와 인식세계는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이 훨씬 더 심화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공감될 수 있으며, 아울러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적 담론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Bigsby, C. W. E. "Tennessee Williams." *A Critical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Vol. II. Cambridge: Cambridge UP, 1984. 15-134.
- Bloom, Harold, ed. *Tennessee Williams' The Glass Menageri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Series. New York: Chelsea, 1988.

- Bluefarb, Sam. "The Glass Menagerie: Three Visions of Time." *College English*. 24:7(April, 1963): 513-18.
- Boxill, Roger. *Tennessee Williams*. London: Macmillan, 1987.
- Cohn, Ruby. *Dialogue in American Drama*. Bloomington: Indiana UP, 1971.
- _____. "The Garrulous Grotesques of Tennessee Williams." *Tennessee William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tephen S. Stant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45-60.
- _____. "The Garrulous Grotesques of Tennessee Williams." *Tennessee Williams. Modern Critical Views Serie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7. 55-70.
- Corrigan, Mary Ann. "Memory, Dream, & Myth in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Renaissance: Essays on Value in Literature* 28 (1976): 155-67.
- Costello, Donald P. "Tennessee Williams' Fugitive Kind." *Tennessee Williams*. Ed. Stephen S. Stant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107-22.
- Donahue, Francis. *The Dramatic World of Tennessee Williams*. New York: Ungar, 1964.
- Falk, Signi Lenea. *Tennessee Williams*. 2nd ed. New York: Twayne, 1978.
- Gassner, John. *Dramatic Soundings*.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68.
- Hirsch, Foster. *A Portrait of the Artist: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Port Washington, New York: Kennikat, 1979.
- Matthew, David C. "The Ritual of Self-Assassination in the Drama of Tennessee Williams." Diss. Columbia U, 1974.
- Nelson, Benjamin. *Tennessee Williams: His Life & Work*. London: Peter Owens, 1961.
- Sievers, W. David. *Freud on Broadway: A History of Psychoanalysis & the American Drama*. New York: Cooper Square, 1970.
- Sohn, Hongeal. Re-reading of *The Glass Menagerie* and *Seven Guitars* from a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70 (2018): 157-76.
[손흥일. 「장애학적 시각으로 『유리동물원』과 『일곱 개의 기타』 다시 읽기」. 『신영어영문학』 70 (2018): 157-76.]
- Tischler, Nancy M. *Tennessee Williams: Rebellious Puritan*. New York: Citadel P, 1961.

- Williams, Tennessee. *Sweet Bird of Youth*. Ed. Martin Brow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77.
- _____. *The Glass Menagerie. The Theatre of Tennessee Williams*. Vol. I. New York: New Directions, 1971.
- _____. *Where I Live: Selected Essays*. Eds. Christine R. Day & Bob Woods. New York: New Directions, 1978.

haimin@kmu.ac.kr

논문접수일: 2020. 6. 7 / 수정완료일: 2020. 8. 22 / 게재확정일: 2020. 8. 25

